

# “안무 시작한 뒤 소통·협업도 배워”



“무용수로서 삶을 끝낸 뒤 안무가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안무가였어요. 창작이 재미있어서 최대한 일찍 안무를 시작하고 싶었죠. 발레리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립발레단 드미솔리스트인 강효형(28)이 안무가가 거듭하고 있다. 이 발레단의 강수진 단장 겸 예술감독이 자신이 활약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을 참조, 지난해 시작한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KNB 무브먼트의 최대 수혜자다. 무용수들이 다양한 비전을 탐색할 수 있는 자리로 주목 받고 있다.

강효형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로서 처음 선보인 안무작 ‘요동치다’는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악그룹 ‘푸리’의 ‘나드레’로 만든 이 작품은 타악 등 한국적인 요소에 소용돌이 치듯 뜨거운 안무

가 더해졌다. 두려움과 고뇌에 요동치는 심장을 잠재우고 앞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리드 안무사 예술감독 취임 20주년을 기념해 이달 16~17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극장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앞서 대한민국발레축제, 라오스·캄보디아에서 열린 국립발레단의 갈라공연 레퍼토리에도 포함됐다.

강 단장의 추천에 감사해한 강효형은 “유럽에 좋은 안무가 많다. 나는 왜 안무를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조금은 새로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적인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느껴지나, 오리엔탈리즘이 풍기지 않는다는 점이 ‘요동치다’의 가장 큰 매력이다. “동양

## 발레리나 강효형 ‘KNB 무브먼트’ 통해 ‘요동치다’ 선보여 타악 등 한국적 요소에 소용돌이 치듯 뜨거운 안무 더해

적인 요소와 서양적인 요소,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며 “너무 동양적인 요소로 가면 자칫 서양 사람들 눈에 민속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다. 국악을 사용하는 건 양날의 검이었다”고 웃었다.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담은 그의 안무는 본능을 중요시한다. “제 작품에 뚜렷한 스토리텔링은 없어요. 작품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싶죠. 관객들이 무용 공연을 보시면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작품만으로 뜨거워지는 느낌이랄까요.”

지난 2014년 케이블체널 엠넷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9 시즌2’로 대중에게 얼굴도 알린 그녀는 “한번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대중성도 작품에 가미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소통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고 흡족해했다. “내 생각과 움직임, 철학을 최대한 구현해내려면 무용수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소통해야죠. 그런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음악, 조명 등 다른 분야의 디자인을 잘 해도 결국 완성은 무용수거든요. 그들과 주고받는 에너지와 철학이 단절이 되면 작품이 완성되지 못하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를 따라, 이듬해 발레를 시작한 강효형은 2009년 국립발레단에 인턴으로 들어와 이듬해 정식

단원이 됐다. 그동안 물론 힘든 때도 있었지만 “슬럼프에 빠져도, 오래 끌고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진감 넘치는 안무작 만큼 털털한 성격의 그녀는 “빨리 털어버려요. 죽이 되면 밤이 되면 꾸준히 하다 보면 어딘가에 ‘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포기를 하지 않죠”라고 웃었다.

최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오네긴’을 끝으로 협연 무용수 자리를 내려놓은 강수진 단장, 국립발레단의 ‘땀’인인 수석 무용수 김지영을 보면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무용수로서 자세를 배워나간다”는 그녀는 바로 안무가로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기동하고 있다.

30~31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국립발레단의 ‘KNB 무브먼트 시리즈 2’에 참여하는 8명의 안무가 중 한명으로 신작을 선보인다. 빛을 주요 모티브로 삼은 ‘슬래시 스루 더 라이트(Slashing through the light)’로 역시 푸리의 음악을 사용한다. ‘요동치다’의 연장선상이다.

“재미있는 것이 제 작품에 신승원 언니가 무용수로서 참여하는데, 언니는 또 안무가로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무브먼트를 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마다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죠. 저희가 유명한 안무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민근 기자

## 김환태의 고장 무주서 듣는다 서울대 권영민 교수 초청강연

무주군은 27일 오후 3시부터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권영민 명예교수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명사 전문가 초청 Happy 365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김환태와 식민지 시대의 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놀인 김환태문화제 심사위원이기도 한 권영민 교수는 △순수문학의 가치를 발견한 무주의 인물 김환태를 중심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그때 그가 문학을 놓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 관계자는 “지난 최북 관련 강연에 이어 김환태 관련 강연을 기획한 것은 이들을 낳은 고장으로 삶과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였다”며 “강연 후 무주읍 전통공예문화촌에 있는 김환태 문학관을 찾는 발걸음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놀인 김환태는 일제 강점기 순수문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계급주의 등으로 경직된 문단에 순수 비평을 싣 특은 인물로, 김환태 선생의 고향 무주군에서는 김환태 선생의 문학을 기리고 무주 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김환태 문학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무주를 단산리 일원에 김환태 문학관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김환태 문학관은 2, 3층에 걸쳐 세미나실과 다목적 영상관, 놀인전시관, 그리고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김환태 선생의 사진을 비롯해 김환태 비평 선집, 놀인 김환태 60주기 김환태가 남긴 유산 등 다수의 저서와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8월 한달간 연장 개방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시관 개방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방시간 연장은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연장 개방 시간에 상설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 등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휴관일은 기존과 동일할 매주 월요일이며,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도 휴관한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관계자는 “직접이나 일과 등으로 전시관 방문이 어려웠던 가족 단위 관람객과 직장인을 위해 전시 시간은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한콘진, 국내 모바일 게임 외국 진출 돕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9일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2016 모바일 게임 글로벌퍼블리싱 지원사업’과 ‘2016 모바일 게임 현지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두 행사는 국내 모바일 게임의 외국 진출과 수출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퍼블리싱 지원사업’은 국내 모바일 게임의 외국 직접 서비스에 따른 게임 완성도 제고와 출시 지원을 위해 ▲ 게임 서비스 운영전략(GM) ▲ 게임 테스트(QA) ▲ 고객관리 서비스(CS) 운영·관리 ▲ 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내외의 게임을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면 글로벌퍼블리싱은 8월12일까지, 현지화는 8월11일까지 한콘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 ‘발레동화 백설공주’ 오늘 고창 공연

명작동화로 사랑받아 온 백설공주를 색다른 공연으로 만날 수 있는 ‘발레동화 백설공주’가 28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돼 선보이는 작품이다.

보다 환상적이고 더 극적인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발레동화 백설공주’는 아름다운 발레 테크닉과 마임으로 많은 대중에게 친숙한 동화의 내용을 전달하며 발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주변을 확대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감성과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4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궁에 살고 있는 백설공주와 새 왕비의 만남과 갈등, 숲속으로 도망치게 된 이후 일곱 난장이와의 만남 그리고 할머니로 분장하고 독이 든 사과를 건네는 왕비로 인해 위기에 빠졌다가 왕자의 등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스토리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창의적인 발레를 추구하는 뷰티풀가든발레단(B.G.B)의 작품으로 선보인다.



고창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은 발레를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culture.gcd.kr>)나 사무실(063-560-8041)로 문의하면 된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 학생 1500원. /고창=김영식 기자

## 힙합 아티스트 42명 이야기 ‘힙합하다’ 출간

대세는 힙합이다. 20~30대를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랩 음악은 온라인 차트를 점령했고, 힙합 아티스트들은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오프라인 무대의 단골이 됐다. 랩 공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는 매년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인기를 더해 가고 있고, 래퍼들이 외치는 ‘스웨이(swag)’라는 표현은 국민 유행어가 된 지 오래다. 현재 힙합 음악과 문화는 한국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책 ‘힙합하다’는 한국 힙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한다. 인기 래퍼와 DJ는 물론 재킷 디자이너와 포토그래퍼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힙합 아티스트 42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성장과정과 힙합 인생을 차례차례 되새긴 후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힙합을 정의한다.

특히 예기치 못한 불운과 주변의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히 아티스트가 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혼혈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도가, 오로지 힙합을 하기 위해 굶은 아르바이트도 마다치 않은 MC 메타, 인민자 출신으로 방황을 거듭해야 했던 타이거 JK, 힙합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더콰이엇 등 저마다의 사연이 절망과 희망을 아우른다.



책에 등장하는 모든 아티스트는 힙합으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대중에게 전한다. ‘힙합하다’를 쓴 송명선은 이를 두고 비싼 허비를 내고도 경기체제로 고용의 문제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절망하는 청춘들이 힙합에 의지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1~2권 각각 304쪽, 312쪽, 각 1만8000원, 안나푸르나

/김민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28일)

<p><b>▷쥐띠</b> 46년생: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라. 60년생: 금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72년생: 외사람의 덕이 따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84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얻게 되니 욕심을 부리면 어려움이 따르니 주의하라.</p>	<p><b>▷소띠</b> 49년생: 힘들기만 하지는 않으니 편안하게 생각하라. 61년생: 서로 웃고 있으나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 73년생: 덕을 쌓아간다고 생각하여 행동하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62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 74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좋으나 욕심을 부리면 화가 미치지 주의하라. 86년생: 익숙한 일에 대해서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p>	<p><b>▷토끼띠</b> 5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3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라. 75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 87년생: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니 과유불급이란 말을 기억하라.</p>
<p><b>▷용띠</b> 52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숭악할 기회가 생긴다. 64년생: 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 76년생: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은 슬픔이 도래하는 운이다. 88년생: 성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p>	<p><b>▷뱀띠</b> 53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65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 77년생: 모든 화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89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p>	<p><b>▷말띠</b> 54년생: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매달리지 마라. 66년생: 귀인의 도움이 따르니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다른 사람과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 9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p>	<p><b>▷양띠</b> 55년생: 아까워라가 인심을 잃으니 먼저 내보내면 후에 돌려받게 될 것이다. 67년생: 맘 출려 노력해 얻은 것에만 만족하라. 79년생: 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면 탈이 나는 운이다. 91년생: 윤행은 불리하니 그 외의 것에는 좋은 운.</p>
<p><b>▷원숭이띠</b> 56년생: 귀인이 돕고 하늘이 도우니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라. 68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수 있는 운이다. 80년생: 동기감으로 인해 시건 사고가 발생한다. 92년생: 지나치게 높게 목표를 잡으면 포기하게 되니 주의하라.</p>	<p><b>▷닭띠</b> 57년생: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굴곡이 따르니 매사 주의해야. 81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린다. 93년생: 한 번에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따르는 운이다.</p>	<p><b>▷개띠</b> 46년생: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작은 것은 이루어지는 운. 58년생: 자신을 낮추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운. 70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야 하는 운이다.</p>	<p><b>▷돼지띠</b> 47년생: 처음엔 좋지 않으나 나중에는 이루어지는 운이니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59년생: 지나친 의욕은 실패를 부른다. 71년생: 질병에 취약한 운이니 건강에 유의하고 섭생에 주의하라. 83년생: 일에 막힘이 생기니 욕심은 금물.</p>